

2022  
모음과  
나눔의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

# 2022 모음과 나눔의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함하여

2022.10.28 (Fri)

15:00-17:00

동우아트홀

15:00-15:10 사회 김태형 | 군산대 교수

개회사 · 격려사 · 축하  
박성신 | 군산문화도시센터장

15:10-15:50

기조강연

자(自)-공(共)-공(公)으로 더불어 살기  
조한혜정 | 문화인류학자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5:50-16:10

주제발표

문화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10-17:00

패널토의 및 질의답변

1 지역문화의 주체, 시민과 문화도시  
정준호 | 전북대 교수

2 문화공동체 실천의 힘과 가치  
박선미 |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

3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송미숙 | 군산시의회 의원 · 군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군산시 군산문화도시센터  
참가신청 군산문화도시센터홈페이지 <https://www.kunsan.ac.kr/gunsanccc>  
SNS <http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  
문의 군산문화도시센터 063-468-0931



# 자(自)-공(共)-공(公)의 가치로 실현하는 문화공유도시, 군산

군산시는 지난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군산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봄부터 진행해 온 문화 활동은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내내 군산시 주요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공유의 달' 행사는 군산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활동 역량을 가시화하는 첫 성과인 동시에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문화공유도시'로서의 면모를 현실화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렴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수차례 걸쳐 포럼을 열고 자문단의 조언을 들으며 논의를 거듭한 끝에 군산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비전을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설정은 문화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군산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 문화공동체로서 군산시가 거듭나기 위한 문화 공감과 공유의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 군산의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인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문화공유도시'는 일상 문화와 문화 일상을 기반으로 문화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自)', 문화 공감과 문화 공유를 통해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共)', 그리고 지속가능한 선순환형 문화공동체와 문화 협치를 구축하는 '공(公)',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문화 주체의 역량 강화에 주목한 자(自)의 가치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장소이자 시간의 연속인 일상에서 문화적 상상력을 투영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문화 주체로서 시민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공동체의 활성화에 유의한 공(共)의 가치는 일상의 문화와 문화의 일상화를 향유하고 그 가치를 나눔으로써 협력적 사회관계 조성 및 열린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문화도시의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공(公)의 가치는 군산시민의 공통 의사결정, 네트워킹, 책임성, 상호 의견 조정 등을 포함한 호혜적 관계의 구축과 강화를 전제로 군산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군산시민의 문화 역량이 결집된 '모임'이 일구어낸 문화적 성취를 다른 구성원과의 '나눔'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치들은 외부로만 향했던 문화의 시선을 군산시민의 일상 속으로 다시 돌려놓음으로써 일상 문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고 향후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차 군산 문화공유포럼에서는 먼저 군산시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가치인 자(自)-공(共)-공(公)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있는 고민과 통찰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천착해 오신 조한혜정 교수님의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한혜정 교수님의 특강이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가치와 지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군산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재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조강연에 이어 포럼에서는 '문화공유도시 군산'의 핵심 가치와 결부하여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지역문화 주체로서 시민, 문화공동체의 힘과 가치, 그리고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고 폭넓게 교환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군산시의 문화도시 사업이 한 발짝 더 시민 곁으로 다가서고, 또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실을 다져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군산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해 가는 과정에 시민 모두가 문화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군산문화도시센터

# Contents

2022 모음과 나눔의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

## 2022 Gunsan City Culture

### 여는글

자自-공共-공公의 가치로 실현하는 문화공유도시, 군산 · 4

### 제 1 부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1 승자독식 사회를 넘어 공생사회로-

‘스마트’ 세대를 생각하며 풀어본 자自-공共-공公의 사회 · 11

조한혜정 | 문화인류학자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 53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 2 부 패널토의 및 질의답변

1 지역문화의 주체, 시민과 문화도시 정준호 | 전북대학교 교수 · 76

2 문화공동체 실천의 힘과 가치 박선미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 · 82

3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송미숙 | 군산시의회 의원 · 군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 86



# 제1부 기초강연 및 주제발표

1 승자독식 사회를 넘어 공생사회로-

‘스마트’ 세대를 생각하며 풀어본 자自-공共-공公의 사회

조한혜정 | 문화인류학자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자독식 사회를 넘어 공생사회로-

## ‘스마트’ 세대를 생각하며 풀어본 자립-공공-공공의 사회



조한혜정 | 문화인류학자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자센터 설립 및 센터장

저서 「자공공-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

「다시, 마을이다」, 「선망국의 시간」 외 다수

# 승자독식 사회를 넘어 공생사회로— ‘스마트’ 세대를 생각하며 풀어본 자自—공共—공公의 사회

조한혜정 | 문화인류학자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들어가며

몇 해 전부터 강사와 청중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문화도시센터가 보낸 간곡하고 정중한 이메일 탓에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실천 –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기조로 하는 센터 소개를 아래와 같이 적어주셨습니다.

“군산시는 십여 년 전부터 주요 기업의 이탈에 따라 악화일로에 처한 지역경제, 그리고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위축 등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공동체의 경험을 착실히 쌓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문화도시로의 선정을 위한 ‘예비문화 도시 사업’에 투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문화 주체가 되어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삶, 시민들이 스스로 삶의 장소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고 가꾸는 문화를 이루고, 나아가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가꾸고자 ‘문화 공유’에 주목하였습니다.”

군산문화도시센터는 행사를 여는 글에서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문화공유도시’는 일상 문화와 문화 일상에 기초한 문화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自)’, 문화 공감과 문화 공유를 통해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共)’, 그리고 지속가능한 선순환형 문화공동체와 문화 협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公)’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공공의 원리를 강조한 것은 2007년 <다시 마을이다>라는 책에서였습니다. 점점 많은 학생이 치열한 경

쟁을 경험하며 승자독식 사회에 길들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를 밟고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쓴 쪽글을 보면서 슬프고 섬뜩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 이후 나는 ‘빵과 장미, 경제와 문화, 돈과 사람, 경쟁의 세계와 우정의 세계’를 대비시키며 삶의 숨결이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돕고 自助, 서로를 도우면서 共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 公助’의 사회원리를 풀이하는 책 <자공공>은 그런 탐색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알라딘 100자 평에서 “자공공의 메시지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후쿠시마, 세월호를 거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더 나은 삶을 향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낙관에 감탄하면서도, 그런 말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삶의 의지를 키우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oneitherside 20141028)는 글을 보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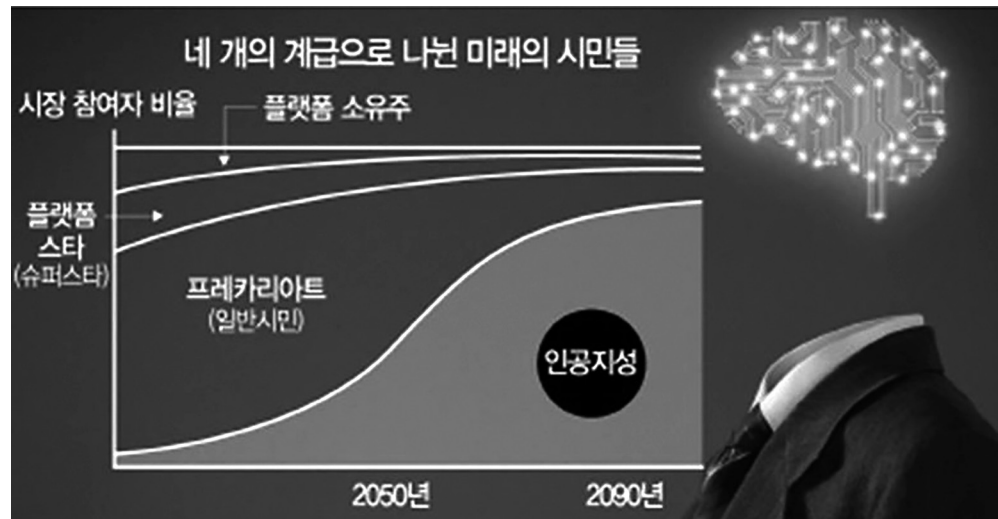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도 그럴까요?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늘 OECD 꼴찌를 기록합니다. 수면 시간이 가장 짧고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결혼기의 남녀가 사랑을 하기보다 서로를 미워하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군산이라는 지방 도시는 좀 다를까요? 부디 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기를 바라는 조그만 희망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BTS는 한국에 엄청난 돈을 벌어주고 국가 이미지를 높여준 문화산업입니다. 임시 산업이 수출되고 있고 한국은 성형 수술로 큰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이른바 선진국이 아니고 돈만 벌고 싶어하는 중진국들의 ‘신흥 중산층’입니다. BTS가 일으킨 ‘문화산업’은 ‘문화’에 방점이 찍힐까요, ‘산업’에 찍힐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한국의 문화산업이 문화와 산업의 균형을 좀 더 잘 잡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저력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문화와 경제, 일상적 생활세계와 관료적 체계는 서로를 보완하고 살려내는 관계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다른 쪽을 압도하게 되면 그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버마스는 서구의 일, 이차 대전 전후 ‘삶/문화’를 압도해버린 전체주의적/파시즘의 체제를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표현으로 풀이해주었습니다. 가시적이지 않고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소통과 돌봄과 상생’의 영역, 우리가 ‘문화’라 부르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관료제와 권력이 압도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초고속 발전으로 우리 눈앞에 바짝 와 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 유기운 교수팀이 2017년 10월 23일 과학혁명이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 미래 계급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연구진은 미래의 계급을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계급은 글로벌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2계급은 인기 정치인과 연예인 등의 스타, 3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97% 사람들이 시민 프리케리엇 (precariet,





과도하고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시민)입니다.<sup>1)</sup>

현재 2010-20년에는 위의 두 계급이 2-20%이고 노동하는 시민 프리캐리야트가 대부분이라면 2050년에는 상층의 수는 적어지고 하층의 시민 프리캐리야트와 AI는 반반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그리고 2090년에 되면 AI가 시민을 압도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는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닥쳐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참여하게 알고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자공공의 논의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답은 자공공 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과 돌봄과 상생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경제가 아닌 사회를 회복하는 것 말입니다. 자발성과 창의력, 스스로 돕는 이들이 서로를 돕는 세상 말입니다.

저는 군산의 아이들이 과외에 치이지 않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AI에 의해 밀려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군산에 있는 아이들은, 청년들은 소수일지라도 AI와 공존하며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조만간 서울로 빠져나간 청

년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화적 도시'가 되는 것, 삶을 회복하는 것, 인간끼리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AI를 포함해서 '만물이 돕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유서 깊은 군산에서 세대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의 터전을 생각하며 튼튼한 자공공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을 초점에 두고 쓴 글입니다.

### 요즘 아이들이 선 자리

몇 년 전부터 어휘력이 부족하고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쓰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못 읽게 되었다는 우려 속에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도 문해력을 언급하고 나섰고 급기야 교육부에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 초등 1, 2학년 국어 시간을 34시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예쁘게 단장한 학교 도서관을 드나드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적했던 도서관도 어린이 책 읽기나 글쓰기 모임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구요.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요.

글을 통해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곱씹어보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읽는 통찰력, 숙고하는 습관, 그리고 제 생각을 수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가 와도 함께 배우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나는 문해력이란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내는 힘'이 아니라 '삶을 읽어내는 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보 홍수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가며 삶을 읽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절실해진 시대이지요. 나는 1990년대 초반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라는 책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교조적 글 읽기와 입시형 글 읽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 병폐에서 벗어난 듯한데 최근에 불고 있는 문해력 붐은 웬지 불길합니다. 문해력이 "공부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힘"이라거나 "초등학교 문해력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라는 문장을 접하면서 말입니다. '문자 미디어' 시대에서 '멀티미디어' 시대를 지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문해력을 공부나 논술력 차원에서 논하고 있는 교육 환경이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유투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의 저자 김성우 엄기호는 SNS 열풍을 염려해야 하지만 독서가 입시를 위한 방편이 되어가는 상황 역시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맥락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소통의 다리가 되면서 윤리적 주체가 되는" 능력을 말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원과 학교를 맴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태권도 학원으로 향하는 노란 봉고에 올라 학원 투어를 시작합니다. 외국인 부모들은 학교와 학원이 만들어낸 이 안전한

1) 황순민 기자, <AI권력이 '초양극화사회' 만든다>, 매일경제 2017년 10월 24일.

최용성 기자, <AI가 지배할 2090년 인간은 4계급 된다고?〉 "유기운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미래 사회는 크게 4계급으로 나뉜다. 최상위층은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투자자들이다. 그 비율은 0.001%에 불과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지구의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 두 번째는 플랫폼에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개인들이다. 정치인, 연예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른바 플랫폼 스타 계급인데, 이들 비율도 0.002%밖에 안 된다. 3계급은 미래 사회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I이다. 사람이 아니지만 사회 시스템 운영에 필수 계급이다. 나머지 99.997% 사람들이 바로 프리캐리야트다. 일자리를 AI에 내주고 단순 반복 노동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하위 계급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시스템화한 고도 미래 사회에서 인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윈스턴 스미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매일경제 2017년 11월 27일

고 효율적인 한국의 자녀 관리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정보력과 기획력을 갖춘 엄마의 코치를 받으며 자란 많은 아이가 일찌감치 세상이 승자독식 세상임을 간파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입시 칼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용 글쓰기 기교에 익숙해지면서 진짜 글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비평가 우석훈은 시험을 금지한 초등학교 시절은 그런대로 책도 읽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공부에 매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입시에 ‘몰빵’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 OECD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국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명문대·정규직에 ‘올인’하는 현상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진학에 올인하고 대기업과 공무원 등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신드롬이 한국의 교육, 직업 훈련 전반을 왜곡시키면서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sup>2)</sup> 다시 아이들의 세계로 돌아와 보면 입시에 나름의 전망이 보여서 ‘열공’하기로 한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상 승자의 길도 이들에게 필요한 ‘비상’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입시중독 환자를, 다른 한편에서는 스마트기기 중독환자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성공한 입시중독환자들이 스마트기기 중독환자들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며 유튜브만 보며 놀아 집 밖 ‘외출 두려움증’을 앓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하니 중독으로 가는 길 외의 길을 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2020년 미국에서 제작된 제프 올롭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The Social Dilemma)는 구글 디자이너였던 트리스탄 해리스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소셜 미디어 중독 현상을 다루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중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고, 사람과 정부를 이용하고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퍼지게 하는지, 그리고 광고에만 의존한 수입 창출 구조가 그런 현상과 다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실리콘 밸리 전문가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에 대해 경악하면서 자신들의 창조물인 소셜 미디어를 주의하라고 간절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이런 중독의 프레임 속에서 살게 할 것인지 새로운 시대를 탐구하고 만들어가는 세계를 만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주 낮은 세상을 살아낼 이 위기의 아이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나는 그들을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2) 김태준 기자, “OECD ‘명문대·대기업 올인’ 한국 발목잡아” 조선일보 2022년 9월 20일

### 3차 과학혁명의 새벽을 여는 ‘신인류’

그 후 5만 년 정도가 지난 1만여 년 전 인류는 자연의 순리에 적응해서 살던 시기를 지나 자연을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변덕에서 벗어나 스스로 곡물과 동물을 키우면서 부족국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듭니다. 이른바 ‘농업 혁명’을 거치면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부족국가에서부터 제국까지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생산하고 비축하고, 때로 비축한 것을 뺏기도 하면서 고대 왕조시대는 중세 봉건제와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거치며 이른바 ‘문명개화’의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때 인류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며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킨 한편 개인의 고립과 국가 간 전쟁, 빈부격차, 인구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스스로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와중에 3차 혁명 곧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산업 혁명 이래 500년 동안 진행된 이 시대는 ‘농업 혁명’을 통해 건설된 문명을 해체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존재가 출현하는 급진적 전환기를 지나는 중이지요. 기성세대가 두 번째 혁명이 만들어낸 문명의 마지막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아이들은 세 번째 혁명의 새벽쯤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너무 급작스럽고 근원적이어서 구성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도기적 혼란과 오해를 우리는 나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책 읽기를 열망하면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으면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계몽주의 세대가 신인류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책을 싫어하고 역사는 순환하거나 망한다고 보는, 지금은 파국의 상황이며, 그래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탈근대적, 탈 인본주의적 신인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선적 진보 사관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해체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난이 파국이 아니라 희망의 부재, 타인에 대한 공감의 부재가 파국인 시간을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적을 낳는 마술적 세계관이며 파국 가운데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모루덴스로서의 본능의 회복일 것입니다.

서구 백인 문명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서 급격한 체제 붕괴의 시간을 거치고 있던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는 열 살 정도가 되면 홀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수호신을 찾고 용맹함을 기르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는 ‘신인류’ 역시 홀로 들어갈 숲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들이 열 살 정도가 되면 자신의 수호신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2병’이 생기는 것이지요. 기존의 일거리가 사라지고 나날이 새로운 문물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은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고 즐겁게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요. 나는 요즘 주변의 소녀 소년들을 보면서 이미 자신의 수호신을 찾아 나선 이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길을 내는 맹랑한 신인류를 주변에



서 일상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룻길에 동네 책방에 들러서 책을 읽다가 책방 주인의 부탁을 받고 훌륭하게 전시 코너를 마련하는 ‘책방 어린이 큐레이터’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아픈 외숙모를 곁에서 지켜보며 어린이용 동의보감에 이어 어른용 동의보감을 통달한 후 약초 시장을 찾아다니고 학교에 가서 피곤해하는 친구에게 한방차를 끓여주는 소년도 알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어슬렁거리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관련 책과 동영상을 부지런히 챙겨보면서 ‘고양이 박사’가 된 어린이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드라마 배우로 자기 길을 찾았던 배우 박은빈이나 동화 작가 전이수,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 같은 사례는 사실 이 세대에서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탈근대적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세계를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진 환경이 된 것이지요.

이들은 세 가지 면에서 앞 세대와 질적으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 문물을 재빨리 모방하고 포드 자동차를 생산하듯 거대 회사를 만들어 기계처럼 일하는 국민을 양산하면 GNP가 올라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맡은 일만 하면 되는 포드주의적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심과 지구력을 키우기보다 변화를 감지하는 창의성과 일을 성사시키는 소통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이지요.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십여 년을 대학과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할 일은 개별가족으로 교육비를 벌여 구체제에서 살아남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을 덜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 소득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자기주도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가 활성화될 테지요.

두 번째로 신인류는 망가진 지구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활동/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67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노동인구의 수가 같아집니다. AI 인공지능적 존재가 생산라인에서 24시간 작업하는 동안 이들은 노인을 돌보고 수시로 터질 위기 상황에서 속출할 취약한 존재들을 돌볼 것입니다. 올리히 벡은 이런 상황을 위기가 일상화된 ‘위험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적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가 아닌 ‘위험’의 개념으로 ‘문명적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서 온갖 종류의 ‘위험/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상황이지요. 사회학자 김홍중은 이런 시대 상황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파상력’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깨져가는 것을 견디고 바라보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운명체로서 공감 능력 또한 키워야 합니다. 가족이기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웃과 인류, 그리고 지구상의 다양한 비인간 생명체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합니다. “아기가 아닌 친족을 만들자”라는 해러웨이의 선언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주문이지요.

세 번째로 ‘신인류’는 과학과 친해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근대가 인문 사회과학적 사유 세계를 중시했다면 ‘신인

류’는 과학적 사고와 알고리즘 언어를 동시에 익히며 AI와 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대부분의 일은 AI가 하고 인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좀비가 되겠지요. 최근에 나온 안드로이드 영화 <미스터 양>이나 <아임 유어 맨>을 보면 로봇이 아이를 더 잘 돌보고 더 살뜰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다정한 AI로 인해 ‘신인류’가 돌봄 영역에서도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I와 조화로운 분업 관계를 이루며 생산과 돌봄 양 영역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AI와 함께 망가진 행성을 고치는 존재들

이제 몇 프로의 ‘가타카(GATTACA)’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늦은 밤까지 학원 투어를 하고 “4당 5락 (네 시간 자면 살아남고 다섯 시간 자면 도태되는)” 선발 게임에서 살아남은 극소수 아이들이 미래의 지배자·생존자가 되어 ‘헝거 게임’과 같은 디스토피아를 만들지, 아니면 부모의 치밀한 생존-성공 기획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호 신을 찾아 나선 ‘신인류’가 멸종을 막는 기회를 얻게 될지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신인류’는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로 넘어가던 격변기보다 더욱 근원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해력으로 말하면 신석기 이후 인쇄술에 바탕을 둔 시기를 ‘1차 문해력’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이 세대는 ‘2차 문해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이지요. 진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시민들의 ‘고독한 책 읽기’가 근대적 문해력의 핵심이었다면 탈근대적 문해력의 핵심은 다시 고향을 찾고 만들며 멸종 위기의 시간을 살아내는 ‘신인류’의 ‘더불어 하는 삶 읽기’가 아닐까요? 보다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과학적인 존재로의 비상이 요구되는 시점이지요.

시장과 학교가 만들어낸 공고한 입시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공략하기보다 낙후시켜라!”라는 문장을 외웁니다. 탈근대적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유튜브가 이미 교육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조를 통한 확장이 가능한 탁월한 학습공간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유튜브는 홀로 참조하고 홀로 배워나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조를 통한 확장은 있지만 만남을 통한 상호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류’끼리 모이기는 쉽다, ‘동료’를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동료로 만나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 경험과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학교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부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1, 2학년 국어 시간을 34시간을 늘린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조선 시대에는 인구의 1%만 서당에 다녔다면 지금은 모두가 학교에 다닙니다. 모든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입시용 교과과정을 없애고 전 국민에 맞는 ‘진도’라는 개념을 없애면 모든 아이가 즐겁게 글을 배울 수 있을 방안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은 조만간 ‘일당백’



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경쟁의 윤리가 돌봄의 윤리를 압도하는 학교에 다녔지만, 신인류는 '만물이 서로 돕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도구적 합리성/객관성의 세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주관적 세계가 되어야 하고요.

근대인들이 피노키오 동화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피노키오와 동일시 했었다면 '신인류'는 피노키오를 만들고 데리고 살아야 하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동일시할 존재이지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문해력을 키워야 하지요. 최근 이경화 작가는 <담임 선생님은 AI>에서 안드로이드인 AI 담임과 좌충우돌하며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자투리 시간을 놓고 자녀와 휴대폰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게 해서는 안 될 테지요. 나는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그런 학급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지금쯤 교실마다 '반려 AI'가 배치되기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널브러져 자고 싶으면 자면 되는 교실에서 또는 동네 도서관 공간에서 스멀스멀 깨어나는 아이들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맞춤법 퀴즈 놀이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에 실린 동시를 천자문 외듯 낭송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에게 나/우리는 어떤 반려자일까?"<sup>3)</sup>라며 어린이 작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글쓰기에 골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다양한 실험적 작업들이 일어나고 행복의 총량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필수조건은 안전한 마을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시민적 공공'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는 토건국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소통 돌봄 상생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삶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학교도 관공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도, 교육청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교육실험도 자공공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하는 재활력화 운동이 프랙털 시대 무늬처럼 번질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작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하던 교사들과 마을 활동가들, 도시 재생 활동가들이 만나 '신인류'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족과 학교와 도서관, 책방과 카페, 약국과 자동차 수리소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신선한 만남과 삶의 실험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탈근대적 문해력을 키우며 AI와 함께 망가진 행성을 구할 '신인류'를 온 마음으로 맞이할 시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주 긴 시간 '영리한 존재'이기보다 '슬기로운 존재'였음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올 7세대의 삶을 고려하는 지혜로운 사피엔스의 후예로 더불어 사는 삶을 즐겁게 일구어내시기를 바랍니다.



3) 제주 선홍 우리 동네에 있는 '비건 책방'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떤 반려 인간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린이 작가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를까?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세상은  
인간 없이  
시작되었고,  
또 인간 없이  
끝날 것이다.”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이성이 역사를 통해 스스로  
발전해가는 법칙은 허구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법칙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우월한 것은 아니다.”  
- 슬픈 열대 (1955)

02


왜 나를 부를까?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인류학 Anthropology

문화인류학자, 한국인, 민주시민, 세계시민,  
여성, 여성학, 실천적 지식인, 지구인.

가족 성원, 친구, 동네 사람, 동네 할머니,  
노인, 박사님, 교수님...




01

왜 나를 부를까?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인류학적 관점



- 1)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한 조상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 반인종주의 anti-racism
- 2) 인류학의 분과  
체질 인류학, 고고인류학 (종의 진화)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언어학 (사회진화)
- 3) 사회학 vs 인류학  
서구 vs 비서구, 근대 vs 전근대/탈근대  
분과 학문 vs 종합 학문
- 4) 사회변동, 개인에서 시작하는 재활력화 운동  
미시와 거시가 만남

03



왜 나를 부를까?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04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인류가 거친 세 차례 대혁명 (하라리)

1. 인지 혁명: 소통, 상상, 집단 신화 (약 7만년 전)
2. 농업 혁명: 제국, 권력, 자본 (1만 2천년 전)
3. 과학 혁명: 인공 지능, 유전공학 (500년 전)

06

02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영리한 존재 vs 슬기로운 존재  
clever vs wise

지식 vs 지혜

CONTENTS

Gunsan Culture City  
문화공유도시, 군산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서문

다시, 한국의 독자들에게

《사피엔스》에서 나는 인간이 가진 신, 인권, 국가 또는 돈에 대한 집단신화를 믿는 독특한 능력 덕분에 이 행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모 데우스》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신화들이 혁명적인 신기술과 짝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검토할 것이다. 이슬람교는 유전공학을 어떻게 다룰까? 사회주의는 새롭게 부상하는 비노동 계급을 어떻게 대할까? 자유주의는 빅데이터로 인한 빅브라더의 출현에 어떻게 대처할까? 실리콘밸리는 결국 새로운 기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한편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대폭 연장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 아니면 우리는 전례 없는 생물학적 빈부격차를 목도하게 될까? 능력이 향상된 초인간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격차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격차보다 더 클 것이다.

07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과학 혁명: 인공지능, 유전공학 (500년-50년 전)

신의 되려는 인간 — 호모데우스

인류의 새로운 의제

20세기까지의 인간의 의제  
기아, 역병, 전쟁

21세기의 새로운 의제  
불멸, 행복, 신성

08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소셜 미디어가 광고주들에게 팔고 있는 것은  
플랫폼 속 유저의 관심과 시간”  
‘스마트폰 좀비’가 되어가는 인간

Microsoft  
Google  
TESLA  
Meta

the social dilemma

Eyes Wide Open  
누가 내생각을 움직이는가  
일상을 지배하는 교묘한 선택의 함정들

TED를 포함한 최근 화제의 강연!  
“내 생각과 선택의 주인은 과연 나일까?”

09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탈근대, 빅 데이터, AI 시대  
글로벌 거대기업이 추진하는 인공지능화와 우주 식민지 사업

아바타

Google  
amazon  
facebook

CES 2022  
핫 키워드는 '메타버스'

THE OUTER WORLDS  
우주 식민지 모험!!

09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2050 미래사회보고서

2090년 미래 계급 전망

1계급: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계급 (인구 10.001%)  
2계급: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계급 (인구 10.001%)  
3계급: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대하는 계급 (인구 10.001%)  
프리캐리야트 계급 (인구 10.001%)  
인생 노동자

네 개의 계급으로 나뉜 미래의 시민들

시장 참여자 비율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슈퍼스타)

프리캐리야트 (일반시민)

인공지능

2050년 2090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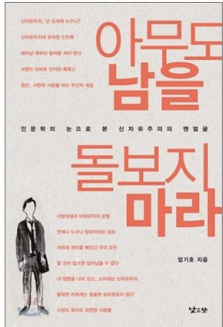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

개인이 자유로운 ‘자유주의’  
시장만 자유로운 ‘신자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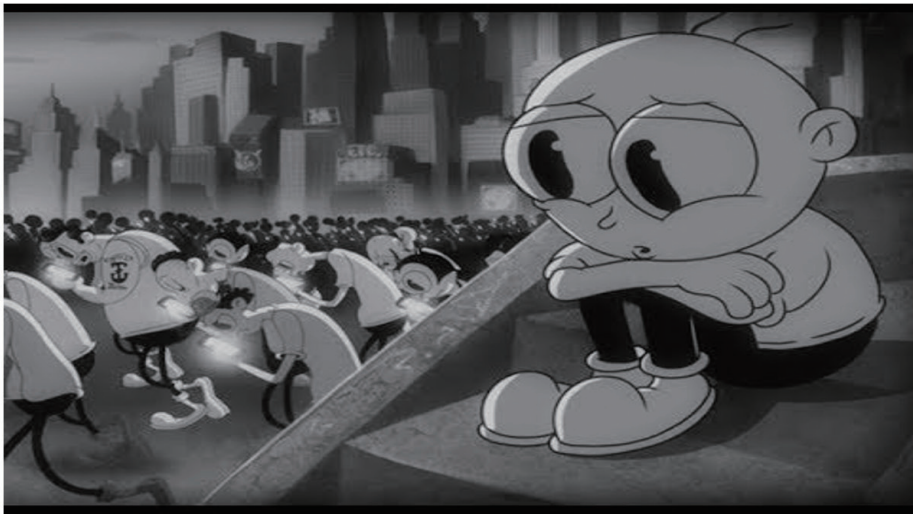
부자는 더 큰 부를 누리고  
서민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사회

12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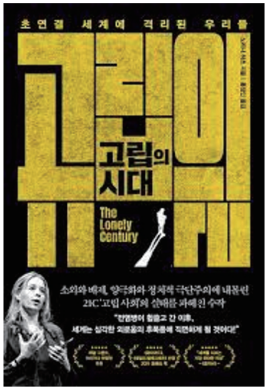
링크주소 : <https://youtu.be/VASywEuqFd8>

14

탈인간중심주의 시대에 인간을 묻다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고립의 시대〉



“거의 온종일 사용자를 ‘디지털 고치’ 속으로 몰아넣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는 더 적대적이고 덜 공감적인 사회를 낳고 있다.”  
‘먹방’, 혼밥과 혼술로 외로움을 달래며 “사회성 경험의 시뮬레이션 한다.”  
신자유주의가 인간관계를 거래로 바꾼 결과  
“우리는 점점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쥐가 되어가고 있다.”  
“가족, 동료 시민, 고용주, 이웃, 정부로부터 지지 받지 못한다는 고립감,”  
“주변화되고 무시 당한다는 느낌.”  
시민에게 경쟁자, 소비자라는 배역을 맡기고  
‘더불어 살기’의 가치를 밀어내고 있다.

13


CONTENTS

Gunsan Culture City  
문화공유도시, 군산

03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사회가,  
사회의 마음이 꿈꿔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파상破像의 시대.  
사람들은  
기왕의 가치와 열망의 체계들이  
충격적으로 와해되는 체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맞닥뜨린다.”  
(김홍중 2016)

16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압축적 시간성

1) 종주국 따라하기, 숨 쉬지 않고 달리기  
성찰이 아니라 집념, 한, 콤플렉스의 에너지

2) 도구적 이성의 지배  
소통 과정 생략/ 도구적 이성 지배  
'체제'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

3) 비동시성의 동시성  
근대 부족주의/민족주의/세계주의의 충돌

18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각자 선 자리에서 자신을 낮설게 본다  
나의 삶과 연결한 역사 쓰기

재활력화 운동(Revitalization movement)

기존 질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좀 더 만족스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벌이는  
의도적이고 조직화된 노력

1. 개인에서 시작 - 좌절, 불안, 자존심 손상, 모순 감지
2. 개인의 머리 속에 든 이미지와 행위들 (자아관, 세계관)  
새로운 언어, 상상 하기
3. 질적 전환을 위한 소수의 움직임, “창조적 소수”  
예언자, 선각자, 개종자, 정치이론, 예술가, 나비효과, Tipping point
4. 문화와 사회 자체 변화

17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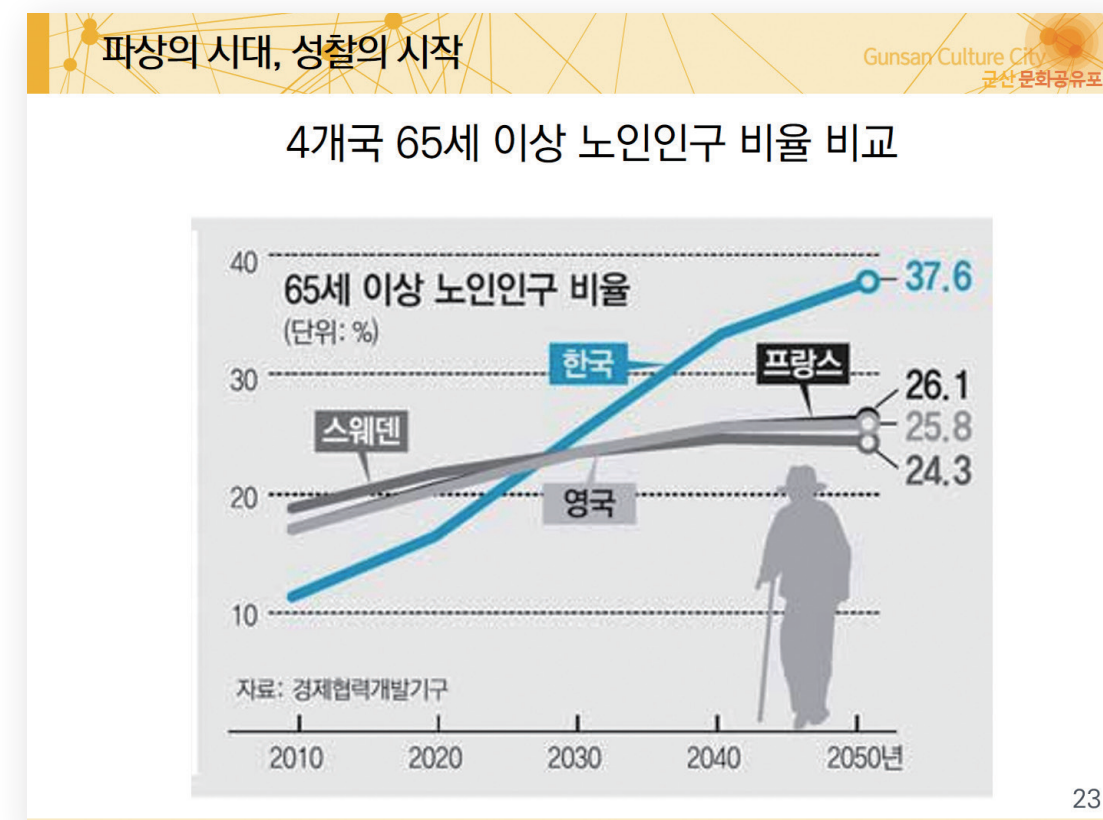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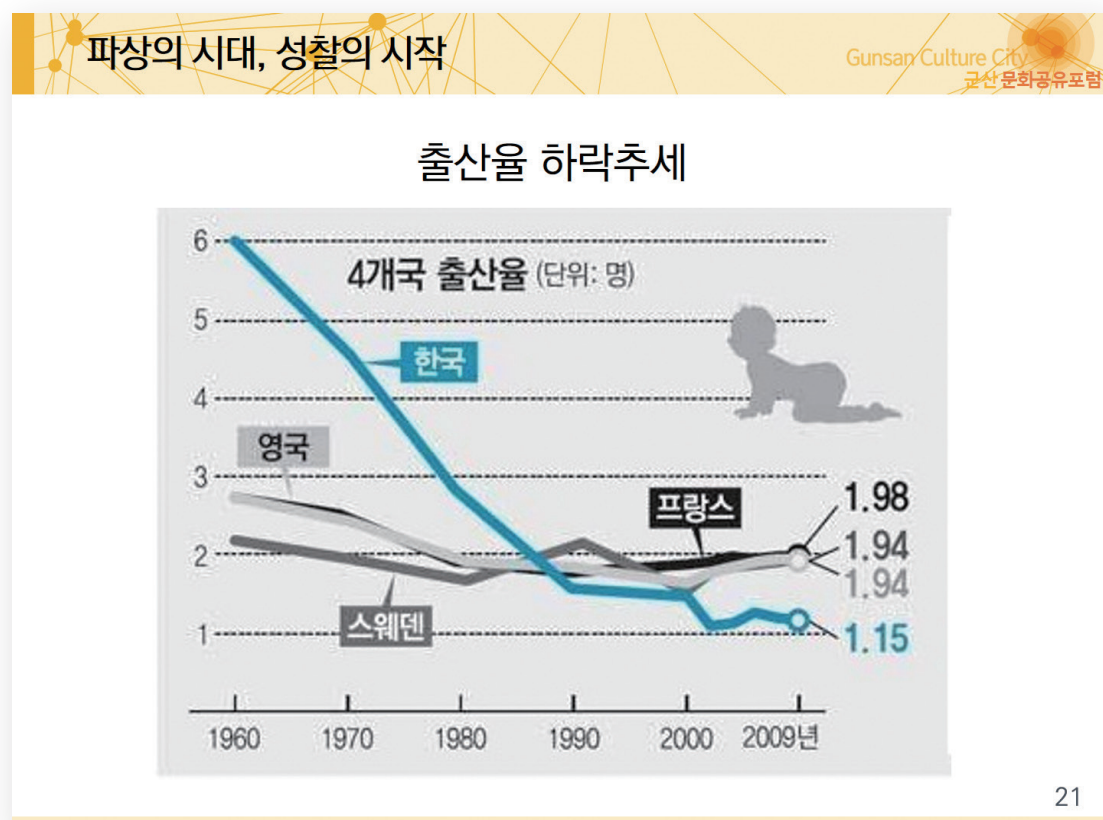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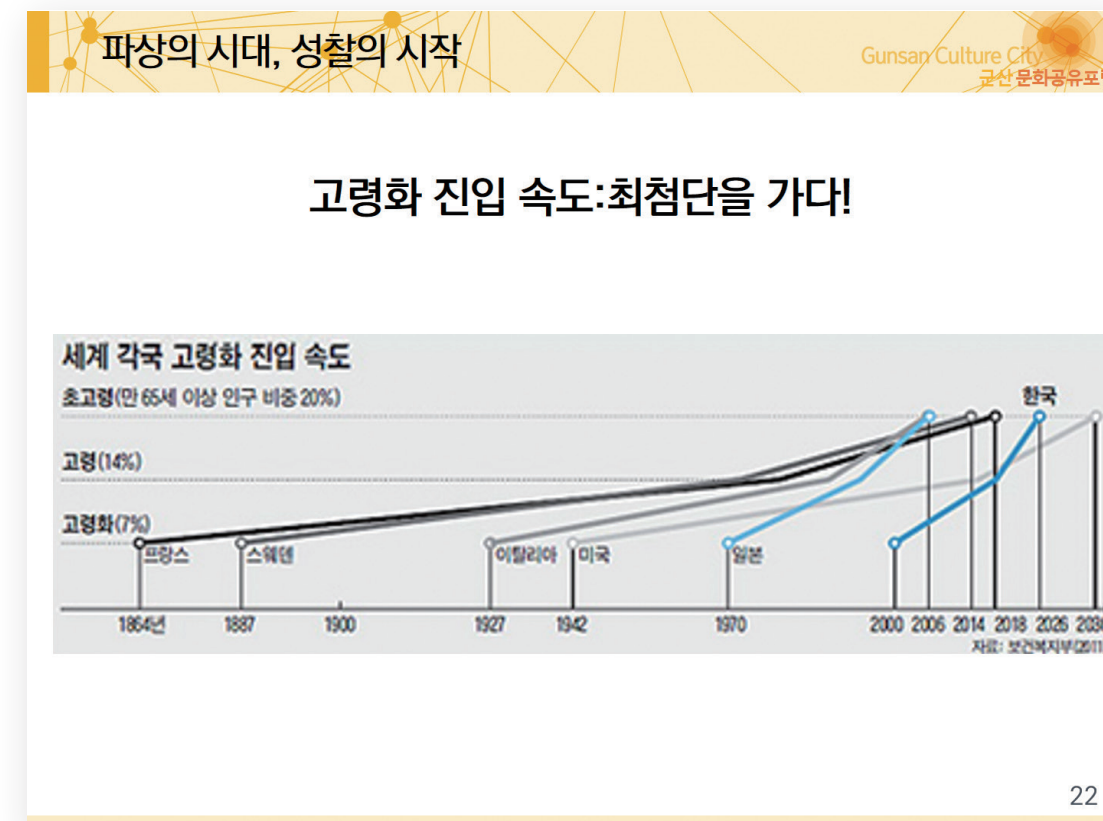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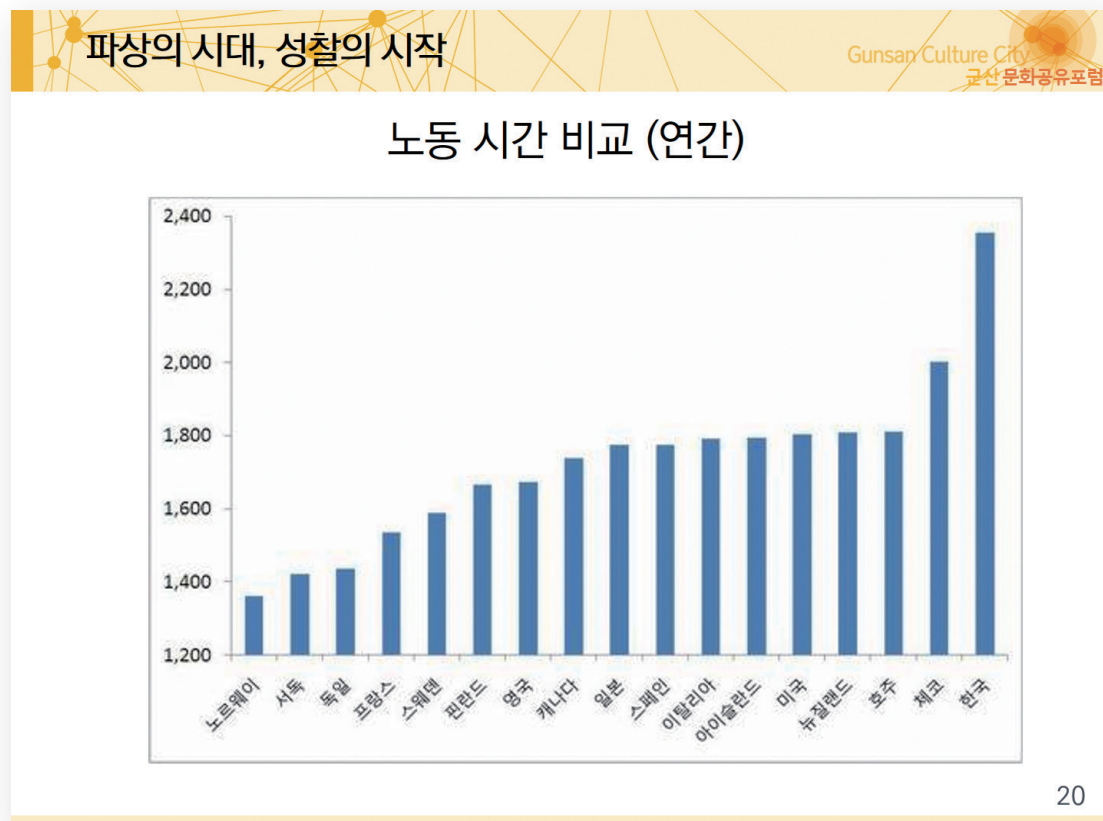
일일 수면시간 비교 (2006년 당시 단위:분)

한국	469
일본	470
독일	492
영국	503
캐나다	509
호주	512
스페인	514
미국	518
프랑스	530

자료: OECD 홈페이지(각국별 2006년 조사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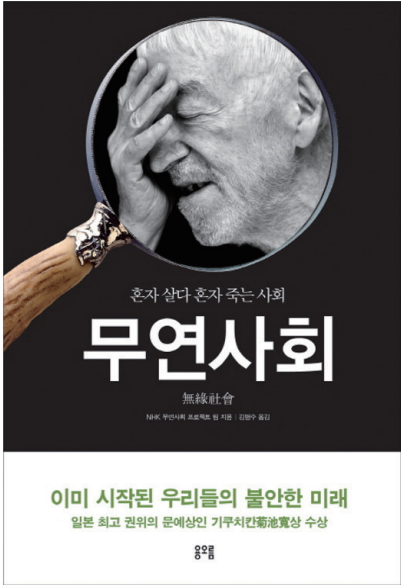
19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혼자다! 급증하는 1인 가구, 노령인구



한국과 일본의 1인 가구 비율  
단위: %

연도	일본 (%)	한국 (%)
1990년	22.8	9.0
1995년	25.0	15.0
2000년	28.0	20.0
2005년	30.0	22.0
2010년	31.2	23.3

이미 시작된 우리들의 불안한 미래  
일본 최고 권위의 문예상인 기쿠치칸(吉岡寛) 수상  
88만원 세대

24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초고속 압축 근대화와 신자유주의화  
GNP 2만불이라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밀고 감

국민  
= 통합된 국민  
남성, 단일, 민족

1980년대  
위로부터의 국가

여성, 시민사회, 청소년, 장애인

1990년대  
아래로부터의 국민

국민  
버려지는 사람들


2000년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국가

26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젊은 패기? 기운 떨어진 청춘  
‘88만원 세대’ ‘3포, N포 세대’ ‘달관 세대’

1. 만날 기회도, 장소도, 시간도, 돈도 없다.
2. 노동보다 피곤한 연애, 차라리 게임이나 하겠다. 반려동물이나 키우겠다.
3. 아기 낳아 잘 키울 자신 없다.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25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체계 system**

목적 달성이 목적  
도구적 합리성  
추상성, 객관성, 개체성  
법칙, 원리, 통계 연구  
예측 가능, 통제 가능성

↓

효율, 경쟁, 위계, 관료제  
“남을 돌보지 마라”  
“만물은 서로 적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독존  
인간중심/예외주의

**생활세계 life-world**

이해와 합의가 목적  
소통 합리성  
구체성, 간주관성, 관계성,  
이해, 묘사, 질적 연구  
호혜의 세계

↓

돌봄, 소통, 자율, 공생  
“혼자 못사는 것도 재주”  
“만물은 서로 돕는다”  
사회적 자유와 공존  
탈 인간중심주의

27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생활세계- 소통 돌봄 상생의 세계  
자율/ 타율→ 더불어 자활하는 열려 있는 상태  
홀로 있는 자, 위험하다

고정된 실체라는 근대적 자아관을 넘어  
자아는 “관계이며 환대의 장소”이다  
자아=‘공(空), 비어있음’ (용수 사상)

“실체는 속성이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만 존재한다.”

28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재난이 파국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공감의 부재가 파국”

Post-Modern  
Post-Colonial  
Post- Human  
Post- Male Human



30

파상의 시대, 성찰의 시작

지금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파상력  
깨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

“신은 신의 자리에,  
과학은 과학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29

04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탈식민주의/ 중심성과 주변성

파괴의 권력 vs 상생의 권력(네그리, 하트)

- 폭력(pouvoir) 집중 축적 파괴적인 힘
-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얻는 권력  
정복자, 제국주의의 논리를 구성하는 권력
- 권위(puissance) 상생 돌봄 관용 생성의 힘
- 다중이 환원되지 않는 힘을 구성하면서 생겨나는 활력

CONTENTS  
Gunsan Culture City  
문화공유도시, 군산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지역성/국가성 /세계성  
Locality/Nationality/Globality  
Local  
'로컬리티 locality'  
구체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의  
교차적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 (Massey, 1991)

32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  
"새만금 '2050년' 글로벌 경제 중심 탈바꿈"  
정보통신 신문 2021.03. 06





단군 이래 최대규모 간척사업  
방조제 길이 33.9km (가레스역 동제)  
간척면적 : 409㎢ (서울 면적의 34배)

바다 위에 땅을 만들려면  
흙이 얼마나 필요할까?

34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국가주의' 시대를 넘어 '글로컬 glocal' 시대로  
'세월호 비극'의 의미를 묻은 안산 사람들




33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돈의 순환체계' (시장 주도 토건국가)에서  
'돌봄 순환체계'로 (돌봄 사회)

모두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무한 경쟁의 시장 사회를 넘어서기.

폭력으로 감싸는 "우리가 남이가" (편 먹기, 패거리)  
돌봄에 의한 "우리가 남이가" (결이 되기)

35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돌봄의 성격

연약함fragility에서 시작하는 돌봄의 세계

“돌봄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  
이 관계의 한 주체다.” - 김소민






36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인류 진화의 열쇠는 “싸움이 아니라 공감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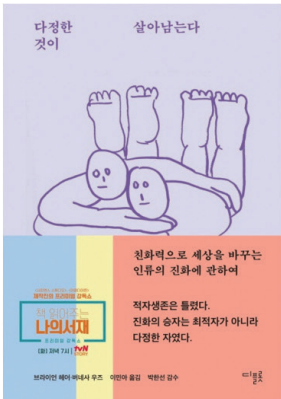
세라 허디 2021: 13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간은 꽤 어린 나이부터 특별한 훈련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곤경을 동일시하며  
낯선 사람에게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다.  
상호 이해, 나눠주고자 하는 충동,  
마음 읽기는 사피엔스의 본능이다.”



38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적자 생존은 틀렸다.  
최후의 생존자는  
친화력이 좋은 다정한 자였다.  
-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미성숙한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얻게 된 언어와 협동하는 능력이 인류 진화의 핵심

37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더불어 사는 상생의 힘을 회복

- 마을의 학교,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육아에서 시작
- 다양한 이웃, 마을 만들기, 교육 문화 활동
- 수치화할 수 없는 우정과 환대의 활동들




39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공공/사 私/공 共 (고대 그리스)

공공 politeia

사적 영역  
oikonomia

공공 koinonia

‘Koinonia’ 시민들의 자발적 사림의 세계

40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공생공락하는 convivial 우정의 세계

- 1) 부유하는 시공간이 아니라 안착할 장소 (동네)
- 2) 삶과 배움이 연결된 실험의 장 (새로운 대학)
- 3)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 노동/일/활동 (한나 아렌트)
- 4) 타율노동이 아니라 자율노동 (앙드레 고르)
- 5) 창조적 에너지와 사회적 경제를 일구는 공유작업장과 공유주거
- 6) 온라인 오프 라인을 통한 글로벌 연계
- 7)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포스트 휴먼 프로젝트

42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자(自)-공(共)-공(公)  
스스로 돕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 태어남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시공간”  
창조적 무-지의 시간 - ‘공동의 감각’

41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 프로그램의 성과는 참여자 수가 아니다

느슨하나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  
관리 통제가 아닌 자율 생성, 환대와 배려의 공간

애니메이터이자 네트워크로서의 강연자/발제자  
->서로를 지지하고 추앙하는 상생의 시간  
->지혜로워지는 나




43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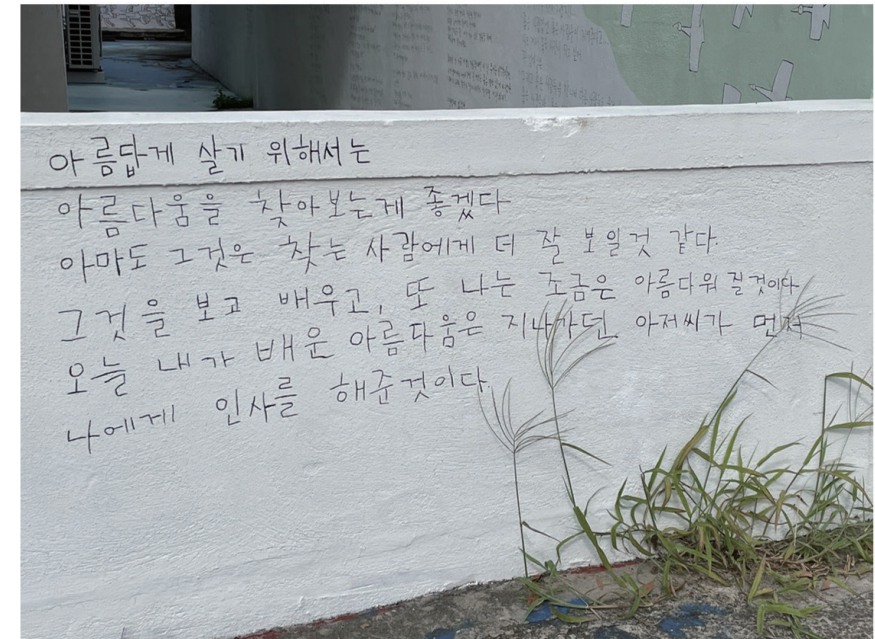
우리 동네 자랑  
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44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46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도서관과 친한 홈 스쿨러들  
진리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린포체(보석)



45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지구에게 나는 어떤 반려자일까?”  
- 제주 ‘비건 책방’ 어린이 작가 워크숍 2022.10. -  
중요한 관계를 알아차림: 구체성과 관계성



47



##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동네 도서관  
시간 있는 자발적 학습자들의 지식 지성 지혜의 활동 공간  
\* 입시생, 취준생이 독점한 독서실을 어떻게 할까?



48

##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중학교 1학년의 자유 학년제 Gap Year  
(2025년부터 자유 학기제로 축소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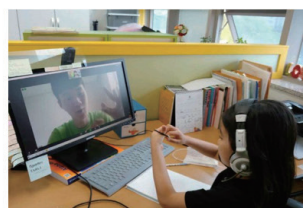


50

##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아이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의 너그러운 학교  
소수 학급, 체벌 금지, 친환경 급식, 안전한 놀이터,  
느슨해진 통제, 방과후 교실, 개별 지도



49

##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하자 센터 : 창의적 공유지 프로젝트  
큐레이터, 퍼실리테이터, 네트워크, 애니메이터로서의 운영자



51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난감 모임



52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동네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도서관, 책방, 카페, 놀이터, 은퇴자의 거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 학교〉...

“강연과 현장 탐방, 자유기획(300팀),  
중학교 자유 학년제 연계 자유학기제 (20팀),  
참여자 중심의 읽기와 글쓰기 활동 심화과정 (80팀)”



54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심심모임



53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생기 있는 삶의 시작의 시작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만든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



55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사회’를 살리다  
나 자신으로 숨 쉬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장소  
배움의 기쁨이 충만한 곳

스스로 훌륭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장소  
즉흥성, 자발성, 비공식성, 재미, 덕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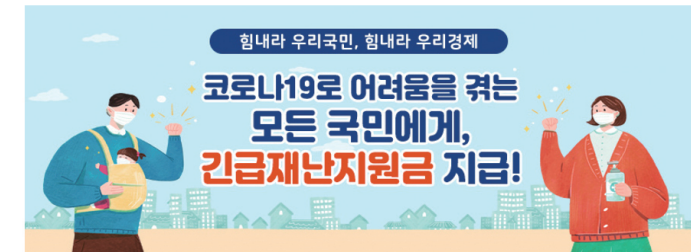
고치를 쳐서 나비가 되는 전환의 시간  
3차 과학혁명 시대가 제대로 가게 하는 장소

56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전환을 위한 자율과 자치의 기반 조성



- 1) 기본소득제도 -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와 ‘일시적 소유’ 최소한의 안정적 삶이 가능한 경제와 공공의료와 학습
- 2) 국가주도 관료제의 변혁: 국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공공 공간은 관리 통제의 공간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들의 창의적 공유지 <국가처럼 보기>가 아니라 <아이/여자/시민처럼 보기>
- 3) ‘사회적 감각’을 가진 공무원과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변화: 협력의 기적을 경험한 3인의 환상적 팀들이 이루어낼 변화

58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서로 돕는 세상을 복원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  
자신의 수호신을 찾아나서는 아이들의 우정의 세계

비상을 위해 고치를 치는 시간



겸손한 구도자, 과학자, 시인, 장인...

57

자-공-공 :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앞으로 올 7세대를 염두에 두고 열리는 사회적 공간  
망가진 지구를 살릴  
‘일당백’ ‘신인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피노키오와 비인간 생명체 + 사이보그와 공생하기



59



#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저서 「서울시의 공공문화사업에서 민간참여 실태와 새로운 모형 수립」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외 다수

#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화도시와 문화공동체, 왜 이들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일까?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선정된 제5차 예비도시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 수가 상당하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50개 이상의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전망이다.<sup>4)</sup> 문화도시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오늘 발표주제와 같이 시민주도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본래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이다. 그런데 정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문화도시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2016년에 작성한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문화체육관광부)을 보면 정부는 법적 개념 외 정책적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라고 문화도시를 규정하고 있다.<sup>5)</sup>

4) 현재까지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2019년 7개, 2020년 5개, 2021년 6개 등 총 18개 도시고, 2021년 16개 도시, 2022년 8개 도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문화도시는 예비 문화도시 포함 총 42개 도시다.

문화도시 지정시기	지정도시
제1차 문화도시 (19.12. 지정)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제2차 문화도시 (21.1. 지정)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원주군, 춘천시
제3차 문화도시 (21.12. 지정)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서울), 익산시
제4차 (예비)문화도시	고창군, 군산시, 군포시, 달성군(대구), 담양군, 도봉구(서울), 북구(부산), 서구(인천), 성북구(서울), 안동시, 연수구(인천),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창원시, 칠곡군
제5차 (예비)문화도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5)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16, p.3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요구한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문화도시 추진목표 중 첫째는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이다.<sup>6)</sup> 또 추진방향 중 하나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sup>7)</sup>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주요한 목표라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박스형태로 문화도시를 ‘과정 중심의 프로세스’라 말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가 문화도시라고 주창한다. 시민참여가 전제되고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도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도시는 왜 이토록 시민참여와 공동체(형성)를 주창하는 것일까?

## 문화정책의 반성과 공동체주의,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를 열다

아마도 그것은 그간의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간의 문화정책은 시민보다는 ‘예술가’를, 지역보다는 ‘중앙’과 ‘관’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왔다. ‘문화의 민주화’란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동등한 문화를 누려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이 개념은 지역 간·계층 간 격차를 뛰어넘어 ‘동등한’ 그리고 ‘균형 잡힌’ 접근(성)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이 예술을 포함해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sources)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차별없는 문화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에서는 지역별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고유성이 아닌 ‘격차’다. 이 격차에 맞서 정부는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기에 각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행한다. 지자체마다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한 것이나 ‘문화로 방방곡곡’ 같은 전국 순회프로그램을 추진 시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의 민주화’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화민주주의’는 개인 및 지역의 고유성, 문화적 특질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있어선 균형보다 차이, 고유성이 중요하다. 각 집단과 지역의 특성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켜야만 왜곡됨 없이 자신을 표출(현)하고, 사회문화 구성의 당당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보단 특화된 형태의 지역발전, 각 집단의 특성에 맞춘 문화발전이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선 예술보다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더 중요한 논리다.

6) 동 가이드라인에서 문화도시 추진 목표로 제시된 것은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등이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8, p.3

7) 문화도시 추진방향은 기존 문화사업의 추진방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추진방향은 세 가지로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등이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8, p.4-5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정책방향	보편적 서비스 제공	각 지역별·집단별 문화성의 발현
핵심가치	균형적 접근성	고유성과 다양성
핵심정책	예술(콘텐츠 제공)	문화(발굴)

문화환경이 척박했던 시기에는 ‘문화의 민주화’가 우선했다.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앙드레 말로가 ‘문화의 민주화’를 주창하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맡고 있던 시기(1958년)는 1980~90년대 우리와 같았다.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환경은 열악했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컸다. 그러나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들어서면 각 사회는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지역별·집단별로 특화된 형태의 발전을 요구하게 된다. 더구나 2000년대 불었던 창조도시론은 각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상품 개발—문화시설, 축제, 전통산업 육성 등—을 요구함으로써,<sup>8)</sup> 지역 간 균형보다는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유도하게 된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과 창조적인 인구가 선호하는 지역 환경의 창출, 지역별 전통산업 육성 등이 그 예이다. 이 시기 지역개발은 세계와의 경쟁이란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했지만, 정책의 방향만큼은 확실히 보편이 아닌 지역별 특화였다.

2000년대가 지나 2010년대가 되면 공동체주의가 사회를 주도하게 된다. 공동체주의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었던 창조도시론이 위축되며 등장한 것으로, 이들은 세계적 경쟁의 무의미성과 ‘고유한 형태의 자기 삶’, ‘공동의 가치와 연대’ 등을 강조한다. 세계와의 경쟁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주지 못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를 포함한 많은 활동들이 이 시기에 등장한다.<sup>9)</sup>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 규정 밖에서 사는 삶은 매우 불확실하다. 여러 사람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을 기반으로, 또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취향과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고, 정책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협치(governance)의 형성이다. 협치란 공동체로 성장한 세 시민을 끌어들이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sup>10)</sup> 이런 집단의 형성은 공동체를 포섭

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협치라는 기존 단어를 개념화함으로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책체계를 재설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공동체주의가 현실화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참여 그 자체가 존중되고’,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화가 되는’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주의 흐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민 참여를 존중하고 공동체 기반의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시민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지역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2020년대 들어 현재는 이미 또 다른 새로운 생존 논리와 경쟁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를 포함해 그 누구도 이제 연대보단 경쟁을 강조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문화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동은 활성화될 수 있을까?

문화 주체 형성, 그러나 쉽지 않은 길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인지, 아니면 앞서 지적한 시대적인 의제 전환 때문인지 많은 도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거버넌스나 지역 발굴, 주민주도의 예술 활동 전환 등을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2021년 문화도시 6대 성과」에 따르면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을 살렸고, 도시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동등하게 지역의 문화 일자리 창출과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된다.<sup>11)</sup>

그러나 보고서와 달리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현재까지의 문화도시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문화도시 추진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개최된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2022.9.29.)에서는 거버넌스가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우석은 거버넌스에 대해 참여 주체 네트워크 구성의 형식적 절차와 시민참여의 반복 행위로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있고, 주민 참여 확산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며, 특정한 방식의 거버넌스 강요로 사업이 획일화되고 있으며, 실제 실효성은 보여주지 못한 채 번거로운 절차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12)</sup> 정광렬 또한 유사한 과정의 회이나 의제 개발, 프로젝트들이 반복되면서 도시별 특성이 사라졌고, 공동체 형성과 같은 ‘수단’이 목표로 설정되면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자체가 모호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sup>13)</sup> 사실상 주민 주도성이나 거버넌스,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목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8) 창조도시론의 핵심 이론가 중 하나였던 사사키 마사유키는 역사문화유산을 포함한 기존 전통(산업)의 무한한 가치를 존중했다. 그가 주창한 창조도시론은 전통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발전시킨 가나자와(일본)와 볼로냐(이탈리아), 역사적 건물을 살려 최고의 디자인 도시를 만든 요코하마(일본) 등이다.

9) 이에 대해서는 이충환, 〈비노동사회를 사는 청년, NEET〉, 서울연구원, 2018 참조

10)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화·파편화된 도시를 넘어 도시 곳곳에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던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고, 여러 도시사업에 주민 및 시민(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거버넌스' 개념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월드 카페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상상(Social Fiction)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도시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어 다양한 도시에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11) 문화도시 6대 성과는 1. 도시문화 브랜드 확립, 2. 문화거점 확대 조성, 3. 주민 만족도 제고, 4. 문화 거버넌스 구축, 5. 문화의 가치 및 문화적 접근 확산, 6. 문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2021 문화도시 6대 성과」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연도 미표기, p.2

12) 서우석, '문화도시 성과와 한계',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발제문, 2022.9.29.

13) 정광렬, '문화도시 2.0 추진방향 제언',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발제문, 2022.9.29.



그런데 이 주체 형성에 있어 검토해 보아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주체발굴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주체(subject)란 무중력 상태의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대주체(the Subject)에 대한 자각과 반성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sup>14)</sup> 사회에 대한 고민과 이성적 판단, 그리고 개인적 관점이 아닌 공공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참여와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sup>15)</sup> 곧 주체란 단기간의 경험이 아니라 오랜 정책참여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의 시민(의식)<sup>16)</sup>으로의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문화도시 사업을 몇 년 했다고 해서 문화주체, 문화시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공성보다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에서 더더욱 불가능한 과제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문화 주체는 당연히 더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서 그 스스로 현재의 문화(대주체)에 대한 자각을 통해 기존 문화를 내면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활동력을 보여주어야 하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정책의 현실 속에서,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대중문화의 집 중된 포화 속에서, 또 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제공이 우선되는 현실에서 내 지역과 주변을 둘러싼 문화를 자각하고, 그 문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주체는 되기도, 만들기도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단기간의 예술교육으로, 몇 번에 걸친 라운드테이블이나 정책기획의 참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역 문화를 형성하며 창출하는 주체로서 인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화 주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문화 주체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

## 마을예술창작소와 주체 형성 전략

주체의 (재)생산은 지역의 중심이자 주인을 획득하는 것으로, 각 지역이 처한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 가이드가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14) 여기서 주체란 언뜻 보기에 '데카르트적 존재', 즉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율적 존재(cogito ergo sum)로 착각하기 쉬우나, 그 자율적 존재란 이미 주어진 자기 임무에 스스로 행하는 자로 주체는 반드시 그를 작동시키는 대주체(the Subject)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기독교 신자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그것은 곧 신이 대주체가 됨을 의미하며,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주체적으로 공부해야지' 할 때 이 주체는 사회에서 주어진 학생의 역할, 즉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주체는 사회이다. 이처럼 특정한 집단 내부에 있는 개체들을 틀 지우는 게 대주체라면, 이런 대주체는 집단 내 실천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에 맞춰 개체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체화 과정이다. 사회는 이 주체의 생산과정을 통해 지속되기에 알튀세르와 같은 철학자는 사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생산이 아닌 재생산이라고 말한다. 주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만 사회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이 주체화 과정은 대주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과정(이성적 판단)과 더불어 대주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동반한다. 즉,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실천을 통해 자신이 주어진 여건을 혁신하는 것이 주체화 과정의 공통된 요소다.

16)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민주 사회'라는 대주체가 생산한 '주체'다. 이상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6, Naver 지식백과 검색 재인용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다. 여러 문화도시 사업을 모니터링한 경험으로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간접적인 체험만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가 경험한 사업에 국한하여 주체의 형성과정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울시가 추진한 〈마을예술창작소〉사업이다. 본래 이 사업은 '동네예술가프로젝트'였다. 각 동네에 흩어져있는 예술가를 육성해 다양한 예술이 펼쳐지는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필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마을예술창작소〉사업으로 바꾸었다. 마을예술창작소의 계획개념은 마을 곳곳에 주민들의 예술활동이 가능한 여러 공간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시가 직접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곳을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상업적 활동—수강료나 교습비, 카페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활동을 하되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핵심 컨셉이었다. 이에 마을예술창작소는 자율성, 마을성, 지속성, 공공성의 4대 운영원칙을 세우고<sup>17)</sup> 운영위원회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부여하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구도 익숙하지 않았다. 사업을 계획한 필자마저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틀을 받아왔을 뿐, 그것이 예술에 적용돼 정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다른 사업과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것은 대상 속에 주체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마을예술창작소가 추진된 2013년 당시 문화계, 특히 지역 문화정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모델은 '성남 사랑방클럽'이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곳곳에서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하게 한 이 사업은 기초문화재단의 모델이 되어 서울시 중구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문화재단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모델과는 달리 '정책주체형' 모델을 사업방식으로 채택하게 된다.

'정책주체형' 모델이란 사업 참여자가 사업 운영자, 즉 사업 주관자로 전환되는 모델이다. 즉, 사업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경험을 거쳐 중간매개자로 성장하고 이후 사업을 주도하는 중간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이 3년 경과 된 공간운영자를 다른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에 참여시키고 2년 후 다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정대상 심사 등 사업의 운영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공간운영자들 스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였다. 현재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로 발전한 운영위원회는<sup>18)</sup> 각 연도별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지정대상 심사와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스스로 수행한다. 사업과정을 통해 사업을 스스로 추진해 가는 '정

17)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청, 2014

18)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는 마을예술창작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진 '담다'를 펴내고 있다.

책주체'를 발굴한 것이다. 이는 여타 사업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매우 독특한 성과로 꼽힌다.

다른 하나는 마을문화활동 DNA를 가진 여러 문화 주체의 탄생이다. 몇 년간 마을예술활동을 경험하고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마을(예술)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부분 창작소를 운영하며 마을예술활동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마을예술 활동 주체가 만들어지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앞으로 이 DNA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 8년간의 마을예술창작소 실험을 통해 필자는 주체의 성장가능성을 봤다. 누구나 정책의 중심이 되면, 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군산은 어떻게 문화 주체를 만들까?

현재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은 위기에 빠져있다. 아마 올해(2022년)가 지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마을예술창작소라는 이름이 남을지 사라질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와 서울시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주체의 생산과 생존 방식에 대한 것이다. 반성컨대 필자는 정책의 주체화를 통해 중간관리자,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문화주체로서 그들이 지역에 생존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못했다. 예측대로라면, 이들은 지속되지 않는 변종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특이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몇 년 후 사라질 하나의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필자가 궁구하는 것은 문화 주체가 생산되고 활동하기 위한 적절한 여건이다. 어떻게 하면 문화 주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며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각 문화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간, 예산, 사업 등-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스스로 문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이 있어야 한다. 소수가 아닌 다수로 확산되어야만 문화 주체는 안정화 된 성장체계를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마을예술창작소 추진과정에서 전자는 어느 정도 이뤘지만 후자는 거의 이루지 못했다. 각 자치구에 이 사업 자체를 뿌리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 지역에 문화가 중요함을 알리는 데에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서울은 여전히 경쟁이 중심인 도시이며, 지역보다는 정치나 경제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시다. 지난 8년간의 노력에도 문화 주체의 생산은 작은 이벤트로 끝나고 있다.

군산은 현재 '문화공유대학', '문화지기 캠프', '동네문화카페', '동네문화추적단' 등의 시민참여 활동으로 군산시민을 문화 주체로 성장시키고, 이들 스스로 발굴한 군산의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면서 일상 문화, 문화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문화공동체로의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지금까지의 공동체주의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군산이 지닌 여건과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주체 형성 및 공동체 사업은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군산시민을 문화 주체로 성장시키고 또 군산을 문화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점이다. 사실 이것은, 정광렬의 지적처럼, 지속해서 제기될 문제 중 하나다. 과연 문화 주체와 문화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수단으로서 문화 주체와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문화도시 사업은 현재까지의 도시발전 틀에서 벗어나는 '도시 자체를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관이 아닌 시민이 주도해야 하며, 외연적 성장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내면이 발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문화도시 사업에 비해 너무 큰 담론이고, 사업의 경계를 벗어난 영역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것은 문화 주체와 문화공동체의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도시기반과 환경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sup>19)</sup> 다양한 도시정책의 중심에 일상 문화와 시민의 문화활동이 위치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직접적 문화 주체 형성과 더불어 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과감하게 주력할 필요가 있다.

19) 「문화기본법」에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는 이런 도시-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각 지역이 자신의 지역에서 펼쳐지는 여러 계획 및 정책을 문화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그 변화를 예측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입법화되어 있는 것이 문화영향평가다.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계획 및 정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문화도시 사업의 전략적 단계로 변질되어 문화도시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안타까운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도시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바꿔간다는 문화도시의 취지에 맞추려면,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거나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포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성과를 근거로 문화도시를 지정하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自共公,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꿈꾸며

문화는 단기간이 아닌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된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이 정체(停滯)되고, 사람들 속에 정체(正體)되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시간의 정책이다. 정체(停滯)시킬 것과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고, 그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 주민이 필요한 것은 그 결정의 과정에 주민의 이익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정체(正體)의 강조는 사회를 정체(停滯)시킨다. 그러나 그것을 마구 걷어내면 미래의 자산을 잃고 발전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문화정책은 늘 거버넌스를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문화정책은 지역정책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시민화·주체화 되지 않은 주민들이다. 공적 관심보다는 사적 이익에 관심이 많고, 공공적 네트워크보다 사적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있는 게 주민이다. 향우회, 산악회, 상인회 등 지역에는 수많은 네트워크가 있지만, 거버넌스 주체는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도 이 답은 보편적으로 구할 수 없다. 해답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지역만의 여건에 달린 문제이며, 지역의 선택과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내기보다 답을 만들어가는 군산시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문화공유도시를 목표로 문화주체(自)와 공동체(共)의 문제를 던지며 ‘문화도시를’(公) 추구하는 군산만의 모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속내를 밝히며 글을 맺고자 한다.





## 주체란 무엇인가?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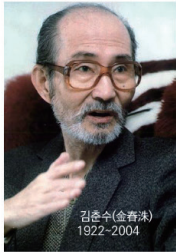
René Descartes  
1596-1650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 1952년 추정



김춘수(金春洙)  
1922-2004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 = 존재와 의미의 부여자

01

## 주체란 무엇인가?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Herbert Marcuse,  
1909-1979

이성적 자각과 예술  
“1차원적 인간에서 2차원적 인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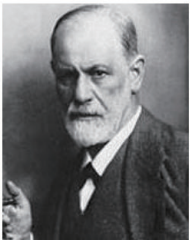
'노틀담 성당'과 '에펠탑'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지창조'와 보티첼리의 '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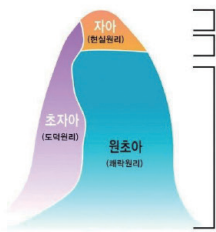
03

## 주체란 무엇인가?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Sigmund Freud  
1856-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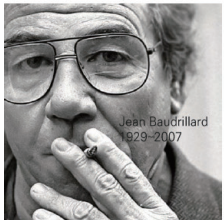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자아 (현실원리)  
초자아 (도덕원리)  
본자아 (쾌락원리)


무의식의 탄생과 대주체(the Subject)의 발견  
“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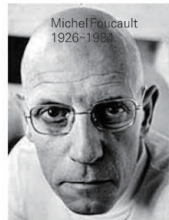
Jacques Lacan  
1902-1981



Jean Baudrillard  
1929-2007



Louis Althusser  
1918-1990



Michel Foucault  
1926-1984

그것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언어가 나를 통해 말해지는 것이다.

상징계에 의한 지배

미디어에 의한 생산

지식과 담론의 생산  
신체화 된 권력

대주체(the Subject)의 발굴과 이성적 자각

02

## 주체란 무엇인가?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이처럼 주체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앞으로부터 형성되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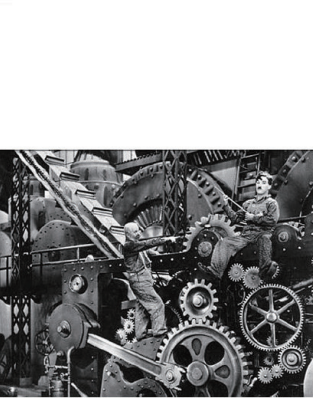
- 이 자각의 과정을 주체화 과정이라 하며, 주체는 이 과정을 통해 '생산'


이 생산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예술과 문화

- 예술은 '보이지 않는 (이면적 혹은 내면적) 세계'에 대한 추상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유발
- 문화는 집단(공동체)의 사고를 내면화 해 공동체 형성 및 성원의 생산에 관여



Charlie Chaplin  
1889-1977





Pablo Ruiz Picasso  
1881-1973

찰리 채플린과 모던 타임즈

피카소와 Korean War(한국에서의 학살)

04



## 주체란 무엇인가?

오늘 군산이 저에게 발표를 의뢰한 것은  
『문화주체로서의 시민,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동체』

내가 답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주체와 공동체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문화는 주체를 어떻게 생산하고,  
문화정책에 있어 주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05

## 주체의 생산과 재생산

## 문화도시와 주체

## 주체생산의 전략

01 주체의 생산과 재생산

02 문화도시와 주체

03 주체생산의 전략

## 문화도시와 주체

### 문화도시 지정

- 2022.9.28.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으로 총 42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
- 문화도시 2.0을 기획하고 있어 그 방향은 알 수 없으나 조만간 50개는 넘을 예정

### 문화도시 지정현황

- 제1차 문화도시 (19.12. 지정)**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 제2차 문화도시 (21.1. 지정)**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원주군, 춘천시
- 제3차 문화도시 (21.12. 지정)**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고창군, 군산시, 군포시, 달성군(대구), 담양군, 도봉구(서울), 북구(부산), 서구(인천), 성북구(서울), 안동시, 연수구(인천),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창원시, 칠곡군
- 제5차 예비 문화도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 속초시, 수영구,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07

## 문화도시와 주체

###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지정

- 법에 따르면 지역별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시
- 그러나 문제부는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여, 시민 주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럼, 왜 문화도시는 시민과 공동체, 과정을 강조할까?

08







## 문화도시와 주체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주체의 생산은 오래 걸리는 길

- 주어진 도시의 여건 및 정책방향과 의제에 따라 달라
- 필자의 경험인 <마을예술창작소> 사례의 공유로 대신

마을예술창작소는?

- 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



마을예술창작소와 함께 하려면?



마을예술창작소 웹사이트 화면

13

## 문화도시와 주체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마을예술창작소의 운영 원칙은 주민의 자율성과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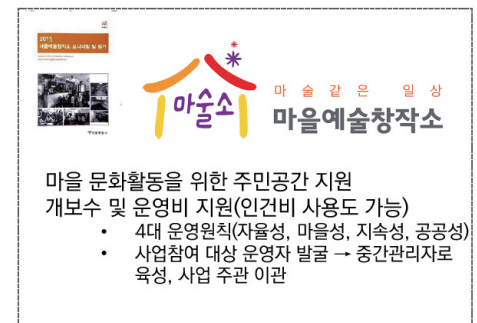
- 비워 뒀도 좋으니 프로그램 하지 말고 주민이 스스로 운영토록 하라는 게 원칙
- 지자체의 빈공간을 활용하는 '민관협치형'과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율형'으로 구성, 주민이 운영하는 공간을 지원하는 데 집중(민관협치형은 초기 지정한 2곳에 불과)

다른 한편 마을예술창작소는 사업 자체를 주민이 주도하도록 설계

- 창작소 운영자들이 예산확보부터 대상선정 심사 및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을 주관
- 사업 참여 후 3년 모니터링 참여 → 모니터링 2년 후 심사 참여 → 운영위원회 사업 주관 → 현재는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로 발전 → 네트워크 관리 및 지역확산 도모 (포항 '삼세판', 인제 '유쾌한 작업', 수원 '문화도시 동행공간', 남양주 '여유당'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 중)



성남 주민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동  
성남문화예술동장 '남실'을 통해 운영  
• 지역 내 빈 공간 활용 예술창작활동  
• 마이너스 된 남실은 외부 공연을 통해 충전, 다시 빈 공간 활용



마을 문화활동을 위한 주민공간 지원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인건비 사용도 가능)  
• 4대 운영원칙(자율성, 마을성, 지속성, 공공성)  
• 사업참여 대상 운영자 발굴 → 중간관리자로 육성, 사업 주관 기관

15

## 문화도시와 주체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 2022년 총76개 운영(지원받고 있는 곳 50개, 지원없이 운영되는 곳 26개)

마술 같은 일상  
마을 예술 창작소

“2012년 가을에 송양면 마을예술창작소는  
슬리퍼를 끌고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이웃과 함께 만드는, 마을 속 예술 공간입니다.”



14

## 문화도시와 주체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전략의 핵심은 '걸 자리'를 내주는 것

과감히 내 줄 수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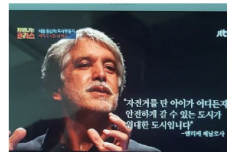


## 문화도시와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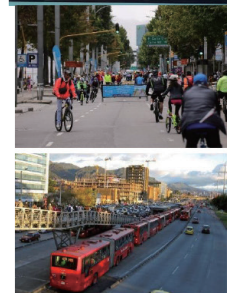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다른 한편, 주체가 형성되기 위한 기반 창출도 중요

- 도시의 역사와 예술의 존중,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과 설계를 통해 그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만 도시주체도, 시민주체도, 문화주체도 가능



“행복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평등입니다. 자전거도로는 30달러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3만달러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중앙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송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입니다.”(엘레제 베넬로사, 찰스 몽고메리,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미디어랩, p.379에서 인용)



군산은 과연 어떠한가?

17

## 문화도시와 주체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군산을 위한 제언

- ✓ 주체의 형성보다 주체의 생산조건에 주목하라.
  - 도시의 기반, 우선 가치 등 시민이 스스로 내가 중심인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
- ✓ 도시의 현재성보다 도시가 가진 장점에 주력하라.
  - 군산이 가진 장점, 자긍심 등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통한 주민 자부심의 부각
- ✓ 빨리 하기보다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해라.
  - 과도한 행정적 개입은 오히려 해악 → 주민이 스스로 끌어 가도록 하고, 내 자리를 내줘야
- ✓ 그래도 성과를 보여줘라. 변화만이 지속을 담보한다.
  - 면밀히 계획된 성과관리와 분명한 변화 제시 → 공론화를 통한 주민자산화로 지속성 담보

감사합니다. 끝.

19

## 문화도시와 주체

Gunsan Culture City  
군산 문화공유포럼

전형적인 축소도시

- 일상의 모음과 가치의 나눔을 통한 '문화공유도시'
- '自', '共', '公'의 힘을 믿어



18



# 제2부 패널토의 및 질의답변

## 1 지역문화의 주제, 시민과 문화도시

정준호 | 전북대학교 교수

## 2 문화공동체 실천의 힘과 가치

박선미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

## 3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송미숙 | 군산시의회 의원 · 군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 지역문화의 주체, 시민과 문화도시

정준호 | 전북대학교 교수

##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문화는 지역과 문화가 결합된 개념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지역문화는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문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의 차이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차별적으로 형성된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문화는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일정 지역에 기반한 지역문화는 해당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일체감 형성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사회에서 지역문화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획일화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역동적 자원생태계로서 주목받고 있다.

## 문화도시의 개념 및 발전

### 문화도시의 개념

문화도시의 개념이 도시정책의 영역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 광업이나 제조업 등의 전통적 산업의 쇠퇴로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서구 선진국의 도시들이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1985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도시의 문화적 삶과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럽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또 2004년부터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문기관, 공동체, 시민사회, 문화협회 등을 포괄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창의성을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삼는 도시 간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sup>20)</sup> 창의도시의 유형은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등 7개 분야로 구분되며, 2020년까지 85개 국가의 24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sup>21)</sup>

20) 노수경, (2021), ‘성숙한 문화도시를 위해서’,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57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 한국에서는 인천, 진주(공예와 민속예술),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전주(미식), 부천, 원주(문학), 광주광역시(미디어아트), 통영, 대구(음악) 등 1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를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법적 정의 이외에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방면의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 삶의 질을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주민 스스로가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의 도시로 규정할 수 있다.<sup>22)</sup>

한국 문화도시의 특성 및 지정 현황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정책적 비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둘째,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셋째,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넷째,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이다. 문화도시의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 구조로서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지역 정체성 획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문화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 자본 및 지역자산의 개발·축적, 사회적 효과의 발현, 지역 자생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23)</sup>

2018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역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021년까지는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신청 지역이 감소하였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7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왔다.

[표 1] 문화도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신청	19개 2018년 8월	25개 2019년 6월	41개 2020년 7월	49개 2021년 6월	29개 2021년 6월
예비도시 승인	10개 2018년 12월	12개 2019년 12월	16개 2020년 12월	11개 2021년 12월	8개 2022년 9월
문화도시 지정	7개 2019년 12월	5개 2021년 1월	6개 2021년 12월	지정 예정 2022년 하반기	지정 예정 2023년 하반기

22) 김세용, (2007), '도시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도시', 「문화도시조성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3) 노수경, (2022),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1차 문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문화콘텐츠연구」 제24호.

[표 2] 문화도시 지정 현황

구 분	사업기간	지정 지역	도시 수
1차 문화도시 (2019년 12월)	2020~2024년	부천시, 영도구(부산), 서귀포시,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7개
2차 문화도시 (2021년 1월)	2021~2025년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5개
3차 문화도시 (2021년 12월)	2022~2026년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서울), 익산시	6개

2021년 12월까지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거쳐서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총 18개이다. 각 연도별 문화도시에 지정된 지역은 [표 2]와 같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인천, 부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가 각 1개 도시, 경기, 충남, 전북, 경남이 각 3개 도시, 강원이 3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명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각 문화도시의 사업명과 주요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민이 사업추진의 중심이 되거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각 지역별 문화도시 사업명

구분	문화도시	사업명
1차	부천시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
	영도구(부산)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원주시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2차	포항시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 포항
	강릉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시나미 강릉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부평구(인천)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
	완주군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3차	춘천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
	공주시	삶을 품은 유산, 미래기억도시 공주
	목포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밀양시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수원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영등포구(서울)	우정과 현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익산시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문화도시의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사업은 기존에 대규모 시설 조성을 추진했던 문화도시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에서 직접 5년 이상의 중장기적 문화정책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치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아직 제1차로 지정된 문화도시의 사업도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도시 사업을 도시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미 역량이 강한 도시를 지정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평가하기도 하며,<sup>24)</sup>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범위의 국한성, 기존 및 신진 전문가 간의 갈등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가칭 문화도시 2.0에서는 문화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통한 성과창출에 치중할지 아니면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할지가 논의의 핵심이다.<sup>25)</sup>

향후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방향을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문화수도가 단기적 행사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는 저조하며, 장기적·구조적 변화를 촉진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서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추진은 모든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배제되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참여도가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모든 지역주민이 문화활동 참여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문화가 가지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sup>26)</sup>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문화도시의 조성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쾌적성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가치증진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문화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문화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24) 노수경, (2022),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1차 문화도시 사업성과 분석, 『문화콘텐츠연구』 제24호.  
25) 올해로 4년차 프로젝트...문화도시 2.0에 대한 기대, e대한경제(<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130621498410925>), 검색일: 2022.10.12.  
26) 서우석·조광호, (2019),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유럽문화수도와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문화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 문화공동체 실천의 힘과 가치

박선미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구교수

민속학을 전공하고 안동대 민속학연구소에서 공동체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군산 문화공유포럼이 아주 반가우면서도 안동에 있는 필자가 군산의 문화도시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야 할까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안동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내 삶이 변화하는 시민역(力)사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기에 자연스럽게 두 도시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군산과 안동은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 사업 이후의 ‘미래 문화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미래의 문화도시를 생각하면 현재의 문화도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문화도시의 정책적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지만<sup>27)</sup> 직관적으로는 ‘문화적 도시’, ‘문화의 도시’를 추구하는 데 있다. ‘문화를 통한, 문화적, 문화의’라고 하는 것에서 문화의 정의를 군산 문화도시는 어떻게 설정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문화정책들은 정작 문화는 빠진 채 정책을 위한 정책이거나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군산시가 향후 문화도시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개념과 범주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화를 실천하며 향유·전승하고 있는 주체, 그 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 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문화도시는 해당 도시의 공동체가 스스로 만드는 문화 속에서 지역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아마도 군산이 문화공동체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것도 이 ‘문화공동체’들의 실천적 가치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 이후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의 군산을 꿈꾸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군산 문화도시는 문화‘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의 공유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 모음, 가치 나눔’이라는 훌륭한 슬로건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문화를 특정한 집단 또는 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으로 포괄하여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문화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며 관습적인 공통 행위와 규범, 규칙 등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문화는 개인적일 수 없고 집단 즉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고 전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속성은 군산이라는 지역공동체에 나타나는 ‘일상생활 양식의 모음들’이 곧 ‘군산의 문화’이며, 또 군산 문화도시가 비전으로 삼는 ‘일상’, ‘가치’라는 것과는 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

27)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8, P.3

만 왕왕 문화를 예술분야로 한정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예술분야에 집중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도삼 선생님께서 “그간의 문화정책이 시민보다 예술가를, 지역 보다는 중앙과 관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한 것처럼 말이다. 간혹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예술 활동을 발굴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주민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군산 문화도시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문화’에 대한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공동체라는 용어는 국가 정책과 관련 사업, 연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쓰임새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공동체가 대표적이고 문화예술공동체, 문화창조공동체가 그 예시다. 그렇다면 군산 문화도시에서 핵심가치, 목표 등으로 삼고 있는 문화공동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군산 문화도시에서는 “실질적인 문화공동체를 군산시라는 넓은 범위로 설정하였지만 우선 작은 단위의 동네를 중심으로 문화공동체가 종횡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문화공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구상을 했다.”<sup>28)</sup> 이에 의하면 군산 문화도시의 문화공동체는 군산이라는 행정적,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문화적 동일성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로 이해된다. 지역공동체는 행정적, 지리적 경계에 따라 다시 동네,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들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날 공동체는 가치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이동이 자유롭고 잦으면서 공동체문화의 변화는 물론이고 공동체성도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군산시가 지역공동체를 문화공동체로 설정하였다면 우리는 지역공동체로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주목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지역 문화자원인 사람, 공간, 문화 등을 잘 전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주도적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산시의 27개 읍면동에는 여러 마을공동체가 있을 것이다. 이는 창의적인 문화공동체가 무수히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공동체의 발현과 실천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산 문화도시가 비전으로 삼는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이 몇몇의 전문가 또는 주도적 활동가에 의한 협의의 문화공동체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 흔히 공동체 활동가 또는 실천가 등으로 불리며 공동체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의 활동과 실천이 두드러져 나타날 때,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공동체와 다수 구성원들의 일상문화가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9)</sup>

또 여러 문화도시가 도시 인구에 비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소수인 경우가 많다. 구조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이해된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을, 동네, 지역 문화를 오랫동안 전승하고 있는 토박이들이다. 특히 마을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고령의 토박이들은 대개 과거 문화공동체의 주체였으나 현재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화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공유, 향유가 쉽지 않고 간절한 대상은 고령의 토박이들일 것이다.<sup>29)</sup> 현재 군산 문화도시의 여러 문화공동체가 17개 사업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 시민들을 포섭,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도시 사업 진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보다 많은 문화공동체가 결합하여 활성화된다면 군산만의 소소하지만 뜻깊은 가치를 가진 일상문화가 모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화공동체의 일상문화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것이야말로 문화의 일상화와 가치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고 군산만의 미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공동체문화는 거창하고 특별하며 빼어난 것이 아니다. 소소하고 일상적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그 자체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공동체의 일상 문화 실천과 그 양상에 주목했을 때, 군산 문화도시가 세운 ‘일상 모음, 가치 나눔’이라는 비전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군산 문화도시를 응원하는 마음과 모든 도시의 문화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으로 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28) 박학래,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 「2022 공생공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 군산 문화공유포럼 자료집, 2022, P.65 참고.

29) 한 예로 경북 상주시에 있는 ‘마르코로호’라는 브랜드는 할머니들이 잘 할 수 있는 ‘실 매듭’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 기부하기도 한다. 마르코로호의 할머니들은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자기 빚기, 꽃꽂이하기, 그림 그리기, 운동회, 여행 다니기 등을 한다. 마르코로호는 할머니들의 일상에 행복을 선물한다는 슬로건으로 지역 할머니들의 일상에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할머니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있다. 마르코로호 홈페이지(<https://marcoroho.com>); 박선미,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경북 예천군 A마을 사례-」, 「한국민속학」 72, 한국민속학회, 2020, P.141 참고.



#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송미숙 | 군산시의회 의원 · 군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 지역문화 거버넌스

오늘 발표에서 강조된 것처럼 문화도시 실현으로 가는 키(key)는 문화도시 추진목표의 첫째인 ‘지역사회 주도 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그 추진 방향 중 하나인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에 있다고 본다. 특히,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인 거버넌스의 이해,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의 전통국가에서 도시중심의 초국가적 현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광대하게 확대된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은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우리 군산의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소외되던 시민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민주적 열망 및 정부가 꺾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방식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거버넌스는 단일 주도자가 이끄는 관성적 질서를 거부한다. 거버넌스는 다수의 파트너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를 일으키는 자생력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얹혀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행정패러다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사회변화의 속도가 극적으로 가속화 될 시 통치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협력 시스템이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국가-문화시장이나 기업-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참여자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상호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sup>30)</sup>로도 불릴 수 있는 자율 · 협력 네트워크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주체

과거에는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스템이 움직였다면 거버넌스는 공공(지방정부), 민간(시민사회, 예술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유기적인 조직을 형성한다. 즉 수직적 구조를 지향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수평적 구조를 지향하는 다원적인 사고로의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만이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유지 및 기능할 수 있다.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시스템에

30) 손예령,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33집 2호, 2019, P.142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 모두이다.

거버넌스의 가장 큰 쟁점은 자연스러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지방정부-민간기관-대학-기업-지역사회가 결합된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된다하더라도, 그러한 정책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되기에 그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참여자가 주체가 될 지라도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중간단계(노드)의 역할을 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진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그러한 조정자의 역할을 ‘중간조직’들이 도맡게 되는데 이때 지역민들과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여 꾸준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나아갈 방향

### 문화다양성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하고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정체성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문화다양성은 단지 다수자가 소수자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소비하거나 혹은 다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만을 선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서로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야를 제시한다. 문화다양성은 각자 다른 문화와 시스템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또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우선하며 소수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한다. 단순히 소수자의 문화만을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자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시각이 뒷받침 되었을 때 지역문화의 권리에 입각한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제정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문화다양성이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군산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이 가결된 것은 고무적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빈곤, 기아, 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육상, 해양오염 저감, 혁신적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등을 포함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한국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 수립은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세부목표 17-7에서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고 지정하였기에 K-SDGs는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성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 마치며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토론지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이에 따른 나아갈 방향으로 군산시가 의회에서 가결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를 잘 톺아보고 다양한 문화 주체를 발견하여 일상 속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문화 거버넌스 작동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로 모여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역할을하기를 바란다.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2022  
모음과  
나눔의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함하여